

# 목련의 묘목 및 성목 생산

이 상 응 / 향촌조경수

연락처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3리 250

(0339)353-0747

목련하면 관상수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수목으로 봄철 모든 수목의 잎이 피어나기 전에 화려한 꽃을 피워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데 으뜸가는 꽃나무이다. 원래 목련은 코부시목련 혹은 산목련이라 불리우는 수종을 말하며 외국에서 개량된 백목련, 자목련, 노랑목련등의 수종은 접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위의 3가지 품종은 조경수로서의 평가기준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므로 질적 우열을 말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자목련에도 보편화된 품종이 3가지로 삭제되고 있는데, 꽃의 색깔과 아름다움은 재래종 자목련이 으뜸간다고 하겠으나 이 수종은 밑에서 맹아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소교목성이므로 성장과 수형이 뒤지는 한편, 꽃이 매우 큰 자목련은 수형이 백목련과 비슷하며 자목련 중 꽃의 아름다움은 뒤진다고 하겠으나

수형도 차분하며, 겨울에 동해를 입어 줄기가 갈라지는 동고병에 매우 강하여 중부 이북에서 재배생산에 알맞다. 황목련(노랑목련)은 꽃의 색깔이 완전 황색을 띠지 못하고 튜립나무 꽃처럼 약간의 녹색을 띤다. 꽃의 내용면에서는 뒤진다고 하겠으나 내한성이 강하고 다른 수종에 비해 성장 속도도 빠른것이 장점이며 잎의 색깔이 항상 연초록 색깔을 띠며 질감이 매우 부드러워 나무 자체만의 감상으로도 큰 몫을 하므로 대중화에 각광을 받을 수종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기술된 여러 수종의 목련은 코부시목련(산목련)을 대목으로 이용한다. 다른 품종은 열매가 많이 결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부시목련은 꽃은 적은 편이고 탐스럽지 못하고 탄력이 부족한 점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무의 세력이 매우 강하고 가지 배열이 차분

하며 수형이 훌륭하여 접목을 하지 않고 코부시목련 상태로 식재생산 하여도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수종의 조경수중에서 목련은 대중성이 매우 크므로 가정주택, 아파트, 공원등의 여러 공사에 공급되므로 재배상에 포함될 염려가 없다.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는 입장에서 묘목값이 비싼것이 단점이라 하겠으나 크기가 무섭게 공급되므로 안전성이 매우 큰 조경수 품목이라 하겠다.

묘목생산에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으나 정확한 생산방법을 습득하면 큰 투자없이 단위 면적당 매우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다.

## I 묘목생산

### 1. 종자의 채취 및 정선

코부시 목련도 잘 관찰하면 잎의 형태가 넓고 둥근형의 품종과 좁고 긴형의 품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목으로 묘목을 생산할 경우 가급적이면 잎이 둥글고 넓은 품종을 택하여야 발아 후 성장세력이 좋으며 접목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접목 후의 평균 활착율도 높다.

목련 종자의 채취 시기는 종자가 완전히 익었을 때보다 약간 미숙할때 채취하는 것이 좋다. 모수를 잘 관찰하여 구과가 빨간 비타민 알처럼 벌어지기 시작하는 9월말~10월 초가 적기이다.

열매 송이를 채취하여 음지 쪽에 5~6일 가량 말리면 종자가 구과 밖으로 전부 나출된다. 나출된 빨간 종자를 손으로 전부 따서 다시 음지쪽에 5cm가량의 두께로 펴 놓고 거적으로 덮은 후 아침 저녁에 물을 주면 종피의 육질이 부숙되어 완전히 검은색을 띠때에 자루에 넣고 문질러 과육을 물에 씻어 검고 딱딱한 종자만을 정선한다.

종자의 정선과정에서 종자내의 배가 투명하게 건조되면 발아가 좋지 못하므로 항시 종자의 배가 우유빛으로 생생하게 유지되도록 유의한다.

## 2. 종자의 매장

종자 채종 즉시 노천매장하는 수종으로 정선 후 종자 소독약에 2일 가량 처리한 후 젖은 모래 2에 종자 1의 비율로 섞어 통풍이 잘되는 포대에 담아 매장한다.

## 3. 종자의 파종

종자의 파종은 직파하는 방법

과 비닐하우스에 파종한 후 어린묘를 옮겨 심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 ①. 모종 옮겨 심기

이 방법은 품이 많이 들고 번거로움이 있으나 완전한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3월 중순경 우선 비닐 하우스에 토양균이 많은 흙을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교환한다.

파종상에 종자를 1㎡당 1l가량을 뿌리고 1cm가량 흙을 체로 쳐서 덮고 위를 차광망으로 2~3겹 가량 덮은 후 계속 관수 관리하여 종자가 완전히 발아되도록 한다.

완전히 발아되어 떡잎이 굳어져 두째 잎이 나오려 할때 모종의 적기인데 5월초, 중순경에 실시한다. 모종하는 묘판의 넓이는 70~80cm로 해야 접목할때의 작업이 용이하고 고랑은 넓이 40cm가량 내는 시늉만 한다.

묘심기의 간격은 주간거리 5~7cm로 하면 대략 한줄에 10주가량 심고 앞줄과 뒷줄의 사이는 25cm~30cm가량 되도록 이식한다.

이식은 비가 온 후 실시함이 좋고 이식 후에 땃가지를 쫓고 50%가량의 차광망을 약20일간 설치하여 준다.

20일이 경과하면 옮겨 심은 묘가 완전히 활착되는데 차광망을 벗기고 2~3일가량 태양광선을 받게한 후 계분과 복합비료를 함께 넣어 충분한 덧거름

을 시비한 후 김매어 가꾸면 대목 기르기가 완성된다.

### ②. 직파하기

직파하는 방법도 3월 중 하순경 비닐하우스에서 종자를 발아시켜 이기가 뜬 종자를 파종해야 한다. 이 방법은 비닐하우스의 바닥을 잘 정리한 후 벼말리는 망을 한겹으로 깔고 종자를 1cm정도의 두께로 밑의 흙이 안보일 정도로 깔고 다시 벼말리는 망으로 덮은 후 깨끗한 흙을 체로 쳐서 1cm가량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벼말리는 망으로 2~3겹 덮은 후 계속 관수를 하며 관리하면 4월 중순경에는 어린 뿌리가 2~3mm정도 발생하게 된다. 어린 뿌리가 1cm이상 되어도 파종 후 발아하는 데는 관계가 없으나 종자가 제비새끼 주둥이 모양으로 이귀만 뜬 상태의 것을 파종하면 적응력이 없으므로 썩어 발아력이 상실된다.

싹틔우기 관리를 잘하여 어린 뿌리의 발생이 최소 3~4mm 정도로 자랐을때 파종하도록 함이 중요하다. 파종상의 넓이는 역시 70~80cm로 하며 고랑은 깊게 내지말고 내는 시늉만 하여 파종한다. 발아 후 포기 사이의 거리는 5~7cm의 씨세우기를 할 것으로 가정하여 종자가 2~3cm간격으로 파종하고 발아 후 보인곳은 슈아 주기를 하도록 한다. 역시 줄과 줄 사이는 25~30cm가량이 되도록 실시한다.

종자가 완전히 발아되면 묘종 하기에 의한 방식처럼 중간 거름주기를 실시한 후 묘가 성장함에 따라 간격을 맞추어 가며 솟아 주기를 실시한다.

#### 4. 접목하기

목련 접목시기는 처서가 지난 후부터 시작하여도 되겠으나 대목과 접수의 형성이 미진한 관계로 중부지방 기준으로 8월말부터 9월 중순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알맞다고 하겠다.

접목 테잎은 0.03mm를 20~25cm씩 끊어 이용함이 좋다. 목련 접목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목기술인데 글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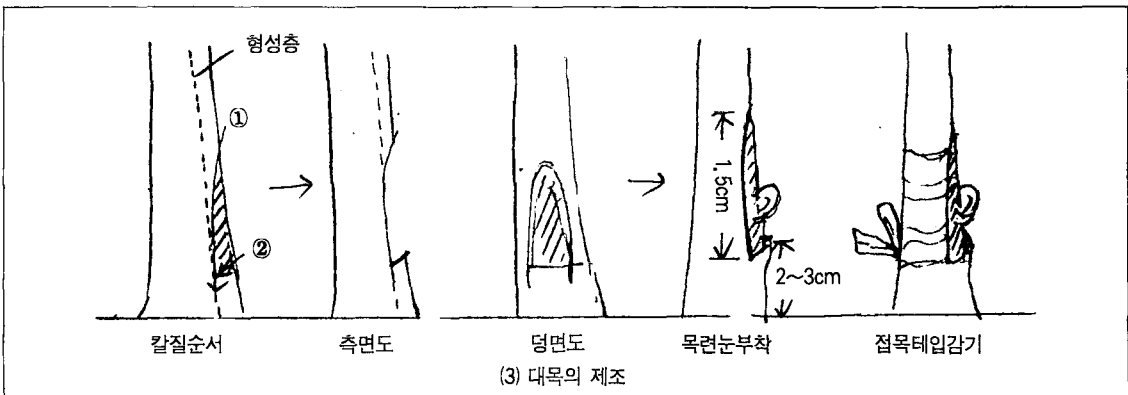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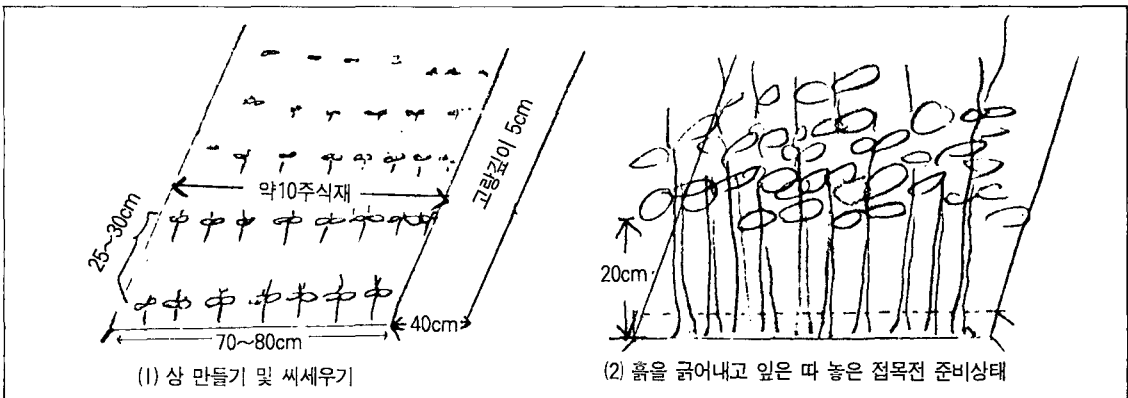
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기술을 숙련 습득해야 한다. 실습장소가 마땅치 못하면 필자에게 연락하여도 가능하다. 접목을 하려면 대목의 굵은 정도가 연필굵기 정도는 되어야 하고 접눈은 도장한 가지보다 나무의 세력이 약한 약한 태양광선을 많이 받은 가지의 잘 성숙된 정상적인 눈이어야 한다.

접목시 준비사항으로 우선 대목의 밑잎을 아래에서부터 20cm가량을 전부 따내고 묘판의 흙을 고랑으로 대목의 뿌리가 발생한 곳까지 긁어낸다.

대목과 접눈의 제조는 작도한

그림으로 대신하며 중요한 사항은 대목제조에서 수피를 잘라낸 부위와 접눈제조에서 눈을 자른 면이 거의 동일해야 하며 접눈 혹은 대목 제조시 분리되는 정확한 경계가 형성층까지 만으로 하고 너무 깊이하여 목질부가 깎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며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칼질은 가급적 한동작으로 끝내며 항상 칼을 갈아 매우 예리하도록 하여 사용한다.

접목 활착의 정도는 1주일 가량 경과하였을때 눈의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유지되고 잎



(3) 대목의 제조

자루에 힘을 가하여 가볍게 잎 자루가 떨어지면 활착이 잘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활착이 잘 못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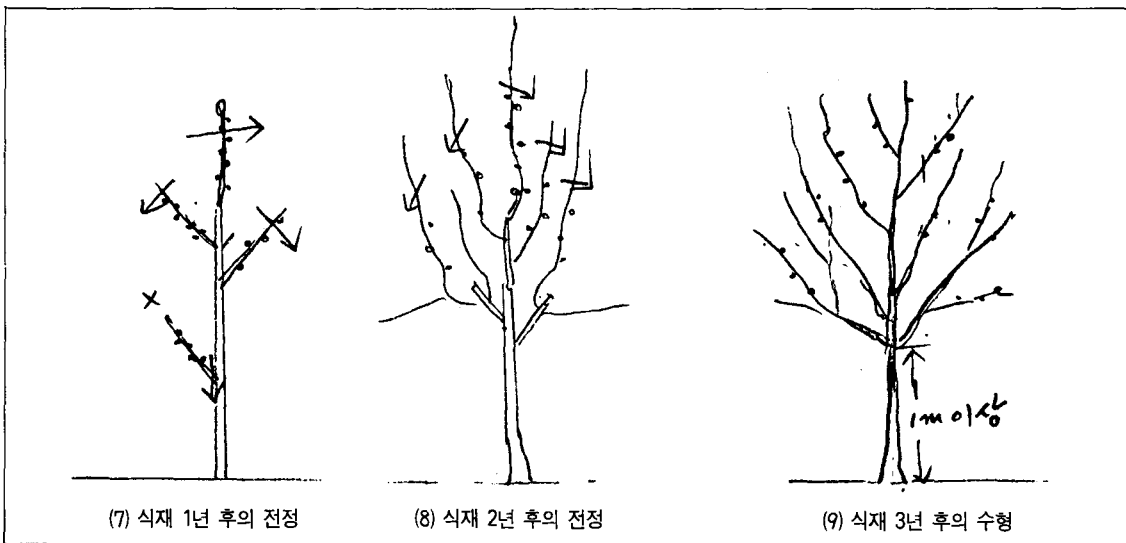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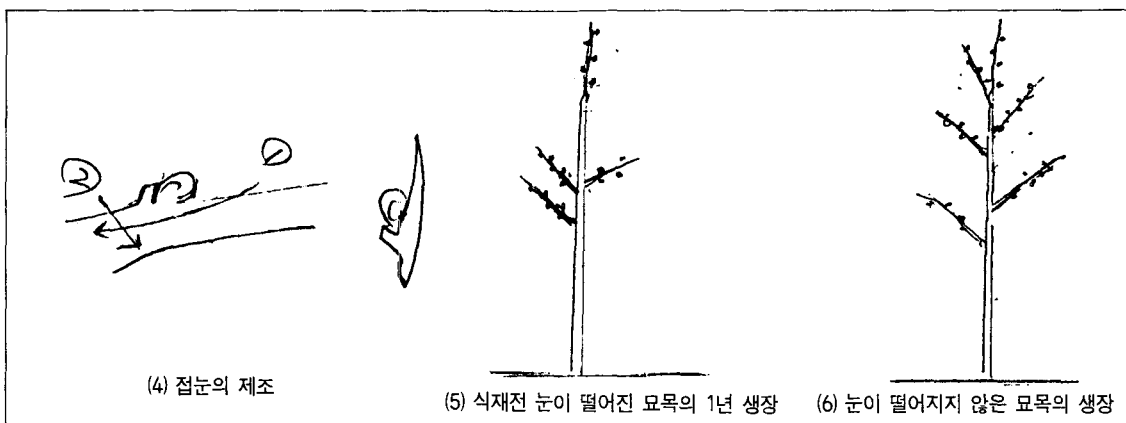
접목 후의 관리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접목해 놓은 눈이 그대로 방치되어 겨울을 지나면 동해의 피해를 입어 실패하게 되므로 첫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지기 시작할 무렵 고랑의 흙을 파서 접목 부위를 전부 흙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덮는 깊이는

접목한 비닐 테이프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된다. 이 작업방법은 다목적 관리를 이용하여 골의 흙을 파서 두둑을 덮으면 용이하다. 흙 덮어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습기의 해를 받아 접눈이 부패될 염려가 크므로 반드시 낙엽지는 시기에 실시한다.

다음해 봄 3월말~4월초에 월동을 위해 덮어준 흙을 전부 다시 고랑으로 긁어내고 난 후 접

목 부위 위에서 1cm가량 대목 잘라주기를 실시하며 동시 접목 테이프를 면도칼로 완전히 끊어 벗겨낸다. 이 작업을 실시한 후 거름 넣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골과 골 사이를 호미로 낮게 파고 가루 계분 혹은 유기질 비료와 복합비료를 함께 충분히 주어 거름주기를 마친다.

위와 같은 작업과정이 끝나고 제초작업 관리만하면 2년만에 1년생 접목묘가 생산된다.



묘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려서 묘목 밑에서 발생하는 가지를 전부 따주도록 하고 묘목이 80cm가량 성장했을때 순을 주면 지하고가 60cm가량되는 수형이 매우 좋은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밑에서 발생하는 가지따주기 및 순주기는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나 묘목의 단가를 높일 수 있어 경영상으로 유리하다. 결국 좋은 묘목의 생산은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를 위한 것이다.

### Ⅱ 목련의 성목재배

다른 수종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목련묘목 식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식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된 묘목이어야 활착율이 좋으며 더우기 백목련같이 동고병이 심한 품종은 식재 후 그 지방의 적응성 관계로 더욱 그러하다. 항시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묘목 굴취 작업후 가식 상태를 거치지 말고 즉시 식재 하려면 묘목 생산자와의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을 염두해 두자.

목련 성목을 출하할 때 근경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하여도 지하고가 적어도 1m정도는 되어야 수형좋은 성목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묘목 가격에 부담이 있다 하여도 1m이상 정도의 묘목을 구입하여야 한다.

묘목심기는 식재후에 화학 비료의 시비만으로는 땅힘이 부족하고 심은 나무가 성장하는 동안 퇴비와 분뇨시비는 노동력

관계로 곤란하므로 식재전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식재하도록 힘쓴다.

밑거름의 식재전 가을에 넣고 땅을 갈아 엎어두는 경우에는 거친퇴비 혹은 완숙되지 않은 가축의 분뇨라도 관계 없겠으나 식재 시기에 임박하여 거친퇴비 및 진한 분뇨 혹은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해를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 할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면 식재전 해의 가을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갈아엎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재시기에 임박하여서 많은 거름을 넣는 것은 삼가하자. 묘목심기를 할 시기에는 땅이 매우 축축하여 묘목이 전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바로 가뭄이 닥친다고 하는것을 감안하여 묘목식재 후 밝아주기는 매우 꼼꼼하게 하였는가 확인할 사항이다.

묘목의 식재 거리는 1m×1m로 하면 근경 5~6cm가량의 재배는 무난하다. 묘목 심기를 끝내고 1m위에서 균일하게 잘라준다. 수형 다듬기는 묘목 식재 후 1년과 2년째에 걸쳐 1회씩 2

년간 전정하면 더 이상은 손볼 필요가 없다.

근본적인 전정요령은 지하고는 1m정도로 하고, 가지의 배열이 사방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수관 발달이 각 나무마다 균일하도록 주간지를 처음부터 유도하여가며 수관폭이 처음부터 발달되도록 손질하여 간다.

전정시기는 휴면기 동안 즉 낙엽이 진 후부터 새잎이 돋기 전이면 어느때든지 좋다고 하겠다.

식재 후 1년이 경과 했을때의 전정은 제일 정상의 부분은 모든 나무의 수고가 같은 범위로서 하여 잘라주고 지하고가 50~60cm정도 아래에서 발생한 가지는 전정하여 지하고가 1m가량이 되도록 손질한다. 식재후 2년이 경과했을 경우의 전정은 수고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관폭이 나무마다 균일하도록 도면에 작도한 것을 참고로 하여 전정한다. 가능한 수고 및 수관폭, 수간의 규격이 같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야 성목 출하시에 유리함을 염두에 두고, 수형 좋은 상품을 생산하자. 44

### 신규회원사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김영철	'064:87-1408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963
늘푸른동산	권종철	'0334:72-5006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18
박애농원	송재관	'0333:52-212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42-1
연안농장	김주호	'0361:53-3341	강원도 춘천군 동면 장학리 736
우림조경	안문구	'053:984-2786	대구직할시 동구 불로동 808번지
	정재규	'0366:32-5315	강원도 홍천군 내면 지문2리 1430
천일조경	전병무	'02:803-4884	서울시 구로구 시흥3동 982 현대빌라 8동 206호
태양농원	석종찬	'02:560-149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5-2